

科学 — 人間

尹 太 鉉

現代 科学의 發達이 人間生活에 많은 便宜을 주고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TV를 通하여 안방에 앉아서 世界 구석구석을 볼 수 있다. 坐見千里가 헛말이 아니다. 高速 巴士는 当日로 釜山 서울間의 불일을 볼 수 있게 한다. 盲臟 手術쯤이야 手術이라 할 수 없는 程度. 웬만한 病은 治療한다. 以外 通信, 冷藏庫, 洗濯器 등등 日用品에 이르기까지 많은 便利를 주고 있다.

더욱이 科学은 지금 38萬km 먼 저쪽 달의 世界에 人間을 보내게끔 進歩하였다. 李太白이 저승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아랑곳 없이 人間들은 달의 征服에만 汲汲하고 있다. 如何든 人類 發生以來 剛期的인 大偉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科学은 또한 人間의 慾望을(自然克服) 부채질하고 人間의 可能性을 북돋우고 그 限界를 最大限으로 充足시 켜주는 뜻에서 一等功臣으로 可賞할만 한 存在가 되었다. ○ ○ ○

그러나 現在 우리들의 地上은 果然 科学의 이러한 功勞로 平和속에 幸福하게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中東이나 越南에 아직도 砲煙이 남아 있는 것이 어떠한 理由일까? 언제 어디서 戰爭이 폭발할지? 人類는 지금 不安과 恐怖속에 살고 있다. 이 작은 地球라는 별 위에 百餘個의 大小 國家가 割拠하여 서로 疑心, 暗鬪, 媒略으로 原子爆彈 水素爆彈, 毒가스, 細菌등등 殺人 武器를 大量生産 하면서 虎視眈眈 機會를 노리고 있는 것은 어찌 된 것일까?

人口增加는 暴騰하고 食糧은 不足, 數萬의 餓死者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美, 蘇를 비롯 赫赫한 나라들은 이를 돌볼생 각조차 없이 吾不關焉이다. “아폴로 11號”가 月面에 着陸한 報導에 美國이 拳國의으로 感激의 도가니 속에 있을때, 그 나라의 黑人들은 “그러한 莫大한 돈을 空飛하려면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데모까지 하였다한다.

우리들은 重大한 時期에 태어났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科学이 進歩할수록 따라서 人間의 不安이 더해진다는 것, 그리고 生活이 便利한 反面에 被害가 더크다는 것이다. 交通事故도 大量死亡으로 單位가 올랐다. 車가 없던 時代에 比하면 몇명 죽어도 어림없다. 아마 車에 犧牲된 家族들은 車가 생긴 것을 怨望할거다 “다시는 車를 타지 말아야지”라고 할거다. 거둬 盟誓할지이다.

科学의 排斥인 公害問題는 날로 深刻하여 解決또한 골

치 거리가 됐다.

農藥으로 農作物의 被害가 늘어진 것은 좋은 現象이나, 이 때문에 家畜이 傷하고 人體에 害로운 食水는 어떻게 허나 工場의 廢水로 河川이 汚染되어 고기나 새가 못 살고 農土가 줄어들고, 가스로 空氣가 더럽고 騒音으로 精神을 못차린다. 물, 공기, 곡식 모두가 人間에게 害를 주게됐다. 여기서 各種 病이 發生하게 됐다, 病菌의 單位가 높아지고 따라서 藥의 單位도 높아진다. 人間의 壽命은 짧아지게 되었다. 자승자박인 꼴이 되었다.

○ ○ ○
오늘날 人類의 危機는 公害外에 核武器의 出現과 그 高性能化를 主要한 直接 原因으로 하고 있지만 더 캐어보면 二十世紀初에 있어서의 原子物理学이란 怪物의 出現과 이를 研究 發達시킨데 있다고 본다. 現代人의 生活 樣式과 職業內容의 急速한 變化도 結局은 科学의 諸分野의 發達한 結果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科学의 發達は 다시 말해서 人間을 幸福과 繁榮으로 이르게 한 反面 恐怖와 不安, 그리고 破滅에 이르게한 可能性을 주었다.

幸不幸 그 어느 쪽을 扞하느냐는 科学自身的 問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科学이 進歩한 現代에 살고있는 人間自身的 問題인 것이다. 人間全體가운데는 科学者도 包含되어 있다. 그렇다고 “나는 科学者가 아니니까 相關할 바 아니다”라고 말할수도 없게 되었다. 이 責任은 누구 누구라기 보다 바로 人間의 責任인 것이다. 政治家, 宗教人, 企業人, 技術者 누구나 다 人間이면 責任지어야 할 일이다.

○ ○ ○
世界二次大戰의 終止符는 日本 廣島에 떨어진 原子彈이었다 數十數百萬의 人命을 犧牲시키고, 아직도 그余波인 原子病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는 “原子彈 네 놈이 나쁘다”라고 꾸짖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놈을 研究하고 製作한 科学者인가 아니면 이 놈을 떨어뜨리라고 命命한 大統領이나 그때, 國會議員들인가 아니면 이를 싣고 가서 떨어뜨린 飛行士에게 욕할 것인가, 담담한 노릇이다.

科学의 成果는 實用性을 갖어오는 것이겠지만 反面에 倫理道德 問題가 들어가게 됨을 피할수 없는 것이다.

科學의 進歩는 人間의 外에 있는 世界, 即 自然科學 이나 物質文明을 合理的으로 理解하고 利用하는데 成功하였다 본다. 그러나 反面에 이 “外”라는 世界에는 人間으로서는 未知인것 또는 合理的으로는 不可解인것 등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갈수록 切感하게 된다.

아무리 人造人間이 모든 機能을 다 한다지만 눈물은 흘리지 못한다, 사랑도 못 할 것이다. 꿈도 없을 것이다.

人工受胎에 成功하였으나 그 精子는 不可解로 만들수 없다.

이런 意味로 人間은 外的 世界에 살고있는 反面, 人間은 內에 있는 世界 即, “마음의 世界”라는 것,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왕왕 輕視되거나 잊어 지거나 하여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科學과 技術이 結付되어 그 技術이 人間 世界의 여러가지 利害關係와 結付된 경우에는 人間性이라 하는 것은, 合理的인 打算的인 側面만에 局限해서 問題 삼아온 것에 不過한 일이 아닐까 본다. 原子物理學者가 物質의 構造를 研究하는 限에 있어서, 그 學者 自身이 人間으로서 어떠한 生活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은 別로 問題로 할 必要가 없었던 것이다. 研究以外에 그 學者의 思想이나 生活과 物質構造의 研究와는 一次 分離시켜 생각해도 別로 相關없는 것이었다. 科學 萬能이라 할까.

그러나 原子의 研究와 進歩, 그리고 原子力을 利用할 可能性이 생긴 瞬間부터 研究者로서의 사는 方法 또는 생각하는 方法과 그 以外로서의 사는 方法 또는 생각하는 方法을 分離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原子力이 어떠한 目的으로 利用되어서도 研究者 自身이 “나는 別相關없다. 研究할 따름이다”라고 敢히 말 할수 있을까, 萬一에 核所有國間의 粉爭으로 原子力이 戰爭의 殺人武器로 使用됐을 경우 이때가서 研究者는 果然 어떻게 自身의 生을 保障 받을 것인가, 실혹 살아 남았다 하더라도 이로 因해 죽어간 數萬의 人間들의 靈魂에 對해 무어라 辯明할 것인가.

広島에 原子彈을 떨어뜨린 飛行士가 근자에 와서 그의 回顧記를 썼다.

平和로운 거리에 通學하는 兒童을 向해 原子彈의 投下 보던을 눌렀을때의 自身의 心情을 表現하면서 平生을 두고 良心의 苛責으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勿論 이 飛行士를 보고 “너는 殺人者, 下手人이다”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또 美國이나 日本이나 누구 相對로 是非를 가릴 수도 없다. 그 當時의 爲政者, 科學者, 製作者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인가.

“人間/다만 人間이다”人間 自体가 어리석고 人間自体가 불쌍할 따름이다. 왜들 이러는가.

科學의 發達은 人間性의 여러가지 側面, 그리고 統一된 人間像의 形成이나 發展을 助長하기는 커녕, 오히려 分裂

과 破壞를 갖어온 結果를 낳은 것이다.

科學은 自然界를 여러가지 方向으로 分化하여 局部的으로 精細한 見을 만한 知識이나 技術을 가진 專門家를 만들어 낸것은 事實이다.

人間이 만들어 내는 機械의 種類가 늘어, 그것이 精巧하게 갈 수록 그것을 使用하는 人間은 “機械의 業”에 介入하여 機械를 理解하고 手苦하고 勞를 避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便利하니까 쓴다”라고만 滿足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機械를 使用하고 있다는 人間自体가 어느새 機械의 도움이 없어서는 살어갈수 없는 生物로 變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停電이되면 一大 混亂이 온다. 冷臟庫, 洗濯器, TV 엘리베이터 등 올 스톱이다. 눈 뜬 장님이다. 오도 가도 못한다 또한 車 事故로 혼 났으면서도 車를 타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다.

○ ○ ○
機械가 人間의 힘을 덜어주고 補強 또는 擴大시켜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컴퓨터-터나 人造人間의 登場으로 “人間의 일”까지 점점 機械가 뺏아간다면 結局 人間이 가는곳 끝은 어딘가? 새로운 疑問이 생기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이 갈수록 모여서 人間性의 여러 側面의 統一을 破壞하여 結果는 人間性의 喪失을 일으킬 憂慮가 없다고 할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分裂이 人間에게서 幸福을 빼앗는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高速버스와 地方완행 버스안의 人情味가 다른 스피드 時代, 마이카 時代에 눌러 人間性이 흐려진 것이다.

根本적으로 科學의 進歩가 반드시 人間을 幸福하게 한다는 保證은 없었다. 科學이란 人間 周邊의 未知의 世界를 開拓하여가는 努力의 表現인 것이며 人間에 있어서의 새로운 可能性의 發見이었다. 未知의 世界속에 果然 무엇이 있는가? 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于先 풀어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可能性이 發見되고 人間 生活에 便利를 준 것이 반듯이 人間에게 幸福을 준다는 保證은 原來 없는 것이다.

그것은 幸福과 繁榮에의 可能性의 發見이 될지도 모르며 人類의 破滅과 人間性의 喪失에의 可能性의 發見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人間의 幸福이란것이 반드시 直接, 學問이나 理論의 對象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닌것으로 본다.

人間의 喜怒哀樂은 人間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려난 것이다. 이는 機械에서 不可能한 人間 特有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人間의 意識 人間의 反省을 超越한 自然發生인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인 것이다.

人間은 平安하고 넉넉한데서 幸福을 느끼는 것보다 어렵고 不足한데서 얻는 幸福이 比할 바 아니라 본다. 人間은 自己自身도 모르는 自己를 發見 할때가 있다, 人間은 人間이기前에 가지고 있던것을 지금도 아직 갖고 있다.

自己가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間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人間의 情念인 喜怒哀樂이란 그런것과 깊이 結付되어 發生하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の 幸福이라는 것을 問題로 할 경우에, 이러한 素因을 떠나서 科學으로 簡單히 풀이해 본다거나, 科學과 結付시켜 본다는 것은 困難한 것이며 不可한 것이다.

人間 世界에 있어서 누가 보나 바람직한 일이며 原理的으로 正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容易하게 實現되지 않고 反對로 많은 異論이 있는 不當한 일이 實現 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人間이 意識된 自己가 合理的인 思考나 反省의 対象이 되는 自己만으로서도 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들 人間이 自己들이 갖고있는 理性和 合理的인 思考能力을 輕視해도 좋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反對로 우리들은 自己의 意識속에 깊이 간직한 自己를 發見하여 참 모습의 自己를 浮刻시키든가, 또는 우리 人間の 理性을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서 人間性的의 보다 넓은 領域으로 擴大시키고 開發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努力에 依하여 今後의 世界에 있어서 人間性的의 喪失이라는것 또는 分裂이라는 것 등 이러한 危險을 救하는 方向으로 人間은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科學의 發達은 人間에게 生活의 便宜와 生活水準의 向上, 人間 送信의 減少, 未來에의 期待等等 여러 모로 功利가 있는 反面에 原子力에 對한 恐怖와 機械 依存 到에서 오는 不安, 人間性的의 喪失, 人間の 情念의 枯渴等等 人間本然의 存在를 脅위 하는데 무엇보다도 크나큰 損失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自然 科學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전혀 “外인 世界”를 探求하는데 “內의 世界”에 對해서 새로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機械는 “計算” “헛일” 헛 手苦가 없다 따라서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다. 그러나 人間에게는 “헛”이 있고 詩가 있고 노래가 있다. 또 人間은 生命의 貴重함을 알고 있다. 自己의 生命을 아낄 줄 알고 남의 生命을 아낄 줄 안다. 남을 도울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人間이다.

人間은 機械일수는 없다.
機械가 人間일 수도 없다.
그러나 機械는 人間이 만든것
人間없이 機械는 있을 수 없다.

人間이 機械의 奴隸일 수는 없다
人間은 人間을 찾고
人間은 人間이어야 한다.

그래서 人間이라면 宇宙旅行에 앞서 于先 地球上에 한 사람의 餓死者라도 求하여야 한다. 그리고 人間이라면 生命의 貴重함을 알고 人間이 人間을 아끼고 人間이 人間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人間이 만든 科學의 產物인 機械를 잘 利用 하며 人間이 人間으로서 잘 살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다.

“遊於芸”란 孔子의 말씀이 생각난다. “人生을 芸術과 함께 놀라”라는 뜻이 된다. 詩와 노래 그리고 愛情이 넘치는 곳에서 人生을 즐길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가.

거기에 “唯生道”即 오직 사는 길인 “知自” “利他” “謝世” 三要素인 먼저 自己를 알고 다음 남에게 利를 주고 그리고 世上에 感謝함으로써 우리 人間은 地上樂園을 이루고 살수 있다고 確信한다.

太極建築代表